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마르코 7, 8)

미사 시간	
미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금) 19:3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금) 20:0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샛별 Pr.	매주 주일 10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주(금) 성시간 후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 주소 변경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 ▶ 9/1(일) 연중 제 22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 성수 예식 및 9월 축일자 축하식 (성가 528 번)
- ▶ 9/3(화) 성 대 그레고리오 학자 기념일 (본당 20:00)
- ▶ 9/6(금) 연중 제 22 주간 금요일 (본당 19:30) 후 성시간
- ▶ 9/7(토) 성모 신심 미사 (본당 11:00)
- ▶ 9/8(일) 연중 제 23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교리 시간

◎구역장 회의

- ▶ 일시 및 장소: 9/1(일) 미사 후

◎은빛 모임 강좌 예비 모임

- ▶ 9/1(일) 미사 후 친교실.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교육 분과장 이동규 프란치스코

◎복사단과 주일학교 단합대회

- ▶ 9/7(토) 원더랜드로 단합대회를 갑니다.

◎ 해밀튼 성 유대철 본당 30주년 축하 골프대회

- ▶ 접수 9/22(일) 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정 및 장소: 9/28(토) 12:00 South Brook GC
문의: 행사분과장 김한욱 에릭

◎2024-2025 주일학교 안내

신청서는 성당 정문앞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강 예정일: 9월 15일
대상: 유치부 - 6학년
문의: 박혜영 수산나

◎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 해 주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문의: 박혜영 수산나

◎한가위 위령 미사 예율 봉헌

9/15(일)은 한가위 미사로 봉헌합니다.
한가위 위령 미사 예율은 전례부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미사 후 성모회에서 친교를 위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공소 소식

- ▶ 금일 간식은 조소연 루시아자매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 ▶ 9월 공소 신자 축일자
(9/1) 남클린턴 프란치스코
(9/29) 진영천 미카엘

단체 소식

- ▶ 본당 울뜨레아
꾸르실료 주말 교육관계로 한 주 연기 됩니다.
9월 본당 울뜨레아는 9/12(목) 19:00 친교실입니다.
10월부터는 목요일 7:00 pm으로 변경됩니다.

구역소식

- 1 구역 9/21 토 11:00 대철실
- 2 구역 9/21 토 11:00 친교실
- 3 구역 9/21 토 12:00 하상실
- 4 구역 9/14 토 18:00 김성수 베드로 형제님 댁
- 5 구역 9/22 일 13:30 친교실
- 6 구역 9/14 토 18:00 이승익 다니엘 형제님 댁
- 7 구역 9/21 토 17:30 박신준 비오 형제님 댁

친교 식사

- | | |
|------------|---------------|
| 9/ 8: 3 구역 | 9/15: 성모회(추석) |
| 9/22: 4 구역 | 9/29: 6 구역 |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05 명)			
주일헌금	\$1300	교무금	\$7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45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 주일학교 \$100 (이인선 쟁마)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9월 본당 세례 축일자 (44 명)

- 9/ 3 그레고리오(박기형, 김준홍), 그레고리아(김정혜)
- 9/ 4 모니카(이경구)
- 9/ 5 데레사(김지혜, 이순복, 민연환, 권민아)
제노(이준우)
- 9/ 7 레지나(황미옥, 이나라)
- 9/ 8 아델라(정세빈), 마리아(홍미경)
- 9/17 힐데가르트(이은영)
- 9/18 소피아(소성희), 리카르다(송지은)
- 9/21 마태오(정현기, 권재성, 정원규)
- 9/23 비오(박신준) 9/26 유타니(홍유나)
- 9/29 미카엘라, (정나현, 조정순, 이병예, 김재원, 박아인)
미카엘(윤성희, 강호경, 흥민준, 김세현, 손정일,
유준, 정상현, 이영섭)
- 라파엘라(정가현, 양남숙, 김지원, 박해인)
라파엘(양향남, 유세진)
- 가브리엘라(박재인, 한성원)
가브리엘(최임환)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9/1	이인선 젬마	최두원 스텔파노 최아현 베로니카	1 독서: 김한욱 애릭 2 독서: 채정희 올리비아	신낙홍 마리아 김영미 스텔라
9/8	임연신 비아	송 찬 아론 이준서 사도요한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김한욱 애릭 채정희 올리비아
9/15	신낙홍 마리아	유세진 라파엘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

“친절에 사랑을 더하면 즐거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이상일 요셉 신부
덕천 성당 주임

오늘 복음은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을 들려줍니다.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에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마르 7,5)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입술은 하느님을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그럴지 않다하시며 계명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규정,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는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단지 보여지는 부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더 갈고 닦아 나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친절과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러자 한 소년이 손을 들고는 일어나 대답합니다. 선생님, 친절은 누군가가 배고플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빵 한조각을 주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빵 위에다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시럽을 얹어준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자선사업가 J.F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친절, 한 마디 사랑의 말이 하늘 나라처럼 이 땅을 훈훈하게 만든다. 가진 것을 나누는 친절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란 뜻이겠지요! 입으로, 말로만이 아닌 직접적인 실천으로 친절, 사랑을 살아가라는 뜻이겠지요! 나누는 친절에 사랑을 더해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들의 주위가 하늘 나라처럼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중 제22주일인 동시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으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미를 묵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과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마르 7,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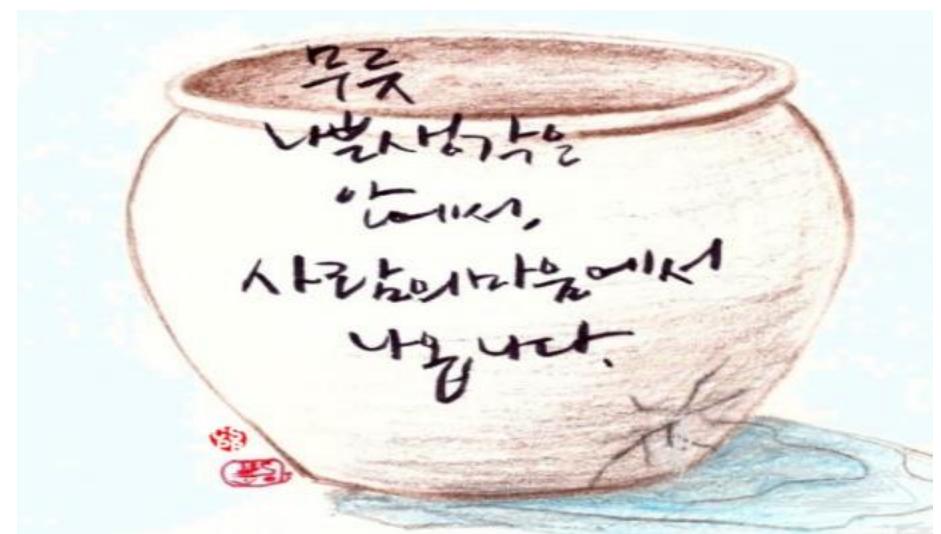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22 주일

(2024. 9. 1)

제 1 독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4,1-2.6-8

화답송 시편 15(14), 2-3 ↗ .3 ↗ -4 ↗ .5(◎ 1 ↗)



후렴.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 리이까?

○ 흄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놈을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도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 2 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1,17-18.21 ↗ -22.27

복음 환호송 야고 1,18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1-8.14-15.21-23